



평생을 선교 일선에서 헌신한 70대이상 선교사 60여명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해 드리는 뜻 깊은 행사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4일까지 열렸다.
크루즈 여행 2번째 기항지인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노선교사님들의 표정이 밝고 행복하다.

감사와 사랑 가득 '은혜의 유람선'

■ 시니어 선교사 크루즈 초대

깊게 패인 주름살, 파뿌리가 되어 버린 머리칼, 한국인인지 동남아인인지 분간이 안되는 얼굴 모습들... 대부분 30대 초반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 무작정 떠났던 그들... 인생 70, 고회를 훌쩍 넘기고 한자리에 모인 60여명의 시니어 선교사들에게 7박8일

의 크루즈 여행은 하나님이 마련해 준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흩어져 30년 이상 사역한 70세이상의 선교사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현지에 남아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현역'들로 척박한 선교지 환경 속에서 버티며 뿌리 내린 그들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족적은 모두 감동적인 대하소설이다.

여행중 저녁마다 한자리에 모여 나눈 동료 선교사들의 자기소개 시간, 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보배같은 신자들을 양육하며 현지 교회를 개척한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었다.

<4면에 계속·조용대 기자>

Inside



영커플 수련회



키즈 연합 예배



주안에만남



의료 단기 선교

7백여 현지 이웃에 복음과 진료 활동 큰 성과

■ 페루 단기 선교

지난 4월 15일~25일까지 이뤄진 페루 의료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안에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의 도움과 기도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한다.

페루의 수도 리마(Lima) 근교에 위치한 박화균 선교사가 시무하는 'GOZO ETERNO 장로교회'에서 주로 이뤄진 사역은 의료선교 특성상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진료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팀을 조직하여 활용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

이번 우리 의료선교의 구체적인 활동은 한방진료와 안경사역 그리고 응급치료 물품과 약품 배분이었다. 3일간의 한방 치료와 토요일 특별 진료까지 포함 400명 가량이 다녀갔고 안경 사역은 320개의 안경 제작, 배포와 색맹 검사, 시력 측정이 있었다. 우리 주안에교회가 돕는 5개 지교회 중 일부를 방문하고 특히 우리 교회의 성금으로 예배처를 마련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의료선교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박화균 선교사가 우리 선교팀을 돕기 위해 평소 도움을 받던 현지 '누가 의료선교회'란 의료선교 단체를 알게 되었고 마침 그 선교회 회장이 한국인 의사라 5명의 의료인이 와서

우리를 돕기로 했는데 막상 4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와서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등 8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3일 간 진료를 함께 하게 돼 우리에게 큰 성과를 이뤘다.

<나형철 기자>

말씀과 예배에 은혜 충만, 행복한 만남 감사

■ 31기 주안에만남

31기 주안에만남은 4월 21일 새가족 21명을 모시고 2부 예배후에 가졌다.

주안에만남 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식사와 셋팅은 전문적인 대접의 최고 수준이었다. 서빙하는 장로님들의 관노(?)의 자세까지 새가족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설교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귀가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전혀 내색도 아니하고 파스타의 치즈를 직접 썰어 드리는 웨이터의 일을 눈치봐서 테이블을 옮겨가며 재빠르게 대접해 드린다.

새로 등록하신 교인들은 청년들과 4·50대의 교인들이었다. 맛있게 식사하는 동안 박찬경전도사님의 색소폰 찬송연주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에 따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철학을 갖고 목회하고 싶었던 목사님은 지난 10년간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해 왔다고 예를 들어가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해 일해 오고 있는 교회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실 때 참석한 성도들의 잔잔한 감동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이예스터 기자>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 용서와 치유의 기쁨

■ 영커플 수련회

언제부터인가 영커플 인원수가 주안에 교회안에서 눈에 띄게 늘어가며, 많은 수만큼 교제도 풍성해져갔다. 그런 영커플들의 신앙의 방향과 친교를 돕기위해 '2024 영커플 수련회'가 준비됐다.

드디어 4월 6일 토요일, 수련회 당일.

가장 먼저 수련회 장소에 들어오는 지체들은 요게벳 봉사자분들이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의 시간을 헌신하고자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표정에서는 온화함과 사랑이 묻어났다. 서둘러 일사분란하게 배정된 호텔방을 정리하고, 행여나 아이들이 다칠까 능숙하게 가구를 재배치하시며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신다.

눈을 돌려 식사팀을 보니, 모두 다소 지친 모습이다. 지난 저녁, 선발팀으로 호텔에 도착해서 참가자와 봉사자 총 100명 분량의 식사 계획, 간식, 그리고 구디백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시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수련회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과 자신보다 서로를 더 걱정하며



자신의 피곤함을 내색하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예배와 세미나가 이루어질 conference room에는 음향을 셋업하는 봉사자와 수련회 준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

느라 리더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구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고 있다.

<6면에 계속 · 김현경 김지희 집사>

사랑과 말씀으로 무럭무럭 '천국의 주인공들'

■ 키즈 연합 예배

5/5(주일)은 어린이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영유아부인 IC Happy & Joy 그리고 초등부 IC Now & Power 학생들이 모두 1층 키즈 예배실에 모여 교육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열려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우리들이 때로는 미숙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영혼 한명 한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함께 배웁니다. EM 학생들도 함께 Skit에 참여해 주어서 더욱 더 풍성한 예배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은 학부모임들께서 함께 음식 도네이션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육부 스태프 분들이 손수 준비해주신 패티로 만든 햄버거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짹구끼리 페인팅/풍선 액티비티도 하였습니다.

현재 영커플 부서가 부흥하면서 교육부에 아이



들도 숫자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의 교육부를 보면서 주안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제 곧 완공될 소책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숫

자적인 부흥에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 하는 세대들이 우리 주안에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전도사>

7박8일 천국잔치...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1면서 계속>

또한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에 괴로워하는 노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동병상련의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로 위로하기도...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점은 이 뜻 깊은 천국잔치에 자칫 주안에교회가 스팟라이트를 받아 칭찬과 감사의 주체가 되거나, 행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하는 것이었다. 평생 선교 일선에서 수고한 그들이 진짜 주인공들이고, 초청하고 격려하고 몇일간이라도 행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의 기회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되레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누구라고... 주안에교회는 어떤 교회 이길래...’ 궁금해 하는 많은 분들께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같은 말로 대답할 때마다 ‘주안에교회와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받았다. 꿈같은 짧은 휴가를 끝내고 각자의 사역지로 다시 돌아가는 선교님들의 얼굴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노병은 죽지 않는

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선교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음질할 뿐이다.’



알래스카에 핀 질노랑 만들레처럼

민들레꽃이 그렇게 화려한지 알래스카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들풀에 지나지 않았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도 한번의 고개짓으로 고고히 다시 피어나 그렇게 짙은 노랑으로 날부러져 피어 다음 사람의 누울 카펫이 되어주었네요.

민들레 같은 삶을 한평생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선교역사를 몸으로 받아내며 기록해 오신 산 증인들, 흐트러짐 없는 모임과 어울림, 한분한분의 이야기 보탬이 한 나라분량일 텐데 누구 하나 드러냄 없이 어우러져 ‘우리’만 존재했던 민들레 키높이 끝없는 대화들. 그 모습에서 국제신사, 멋진 오빠, 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굴곡진 지난 날보다 더 힘찬 고개짓을 보았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종들만의 세계를 흡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펫 위에 아직도 춤춰야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젊음의 뒤안길에 머물다 말 것 같은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발견하고 크루즈 무대 위에 세우신 주안에교회는 대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끝까지 주님 영광 뒤에 숨기로 작정하고 그 흔한 카톡 영상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교회와 최혁목사



님은 또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일이 가능하도록 물질과 마음을 흔쾌히 주시고 함께 동행 보살펴주신 교우님들의 사랑의 매를 기억하겠습니다. 통로되어 섬겨주신 도우미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큰물이 바다를 덮음이 어떠한가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큰 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 산소를 뿜어내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때까지 현장에서 달려 가겠습니다.

감사 영광 오직 주님께만~!!

<최준영 / 인도네시아>

‘우리가 누구관대...’ 주님의 큰 은혜로다



■ 선교사님들이 남긴 한마디

- 오~ 겸손의 순종 넘치는 사랑으로 섬김, 그 큰 사랑의 빛 갠 길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복으로 삼십배 육십배 백배로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감히 꿈꾸지 못했던 크루즈 여행을 하도록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도 여러 선배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귀한 은혜에 도구로 쓰이신 주안에 교회에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수종들어 주신 여러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 더욱 사명 잘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 평생 처음 해보는 크루즈 여행, 전 세계의 선교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대화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크신 격려와 사랑을 조용히 섬기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넘치기 기도합니다.

-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안에교회의 섬김을 받으며 영적, 육적으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울거예요.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부부만 앓아왔던 저희 아들 문제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 충성할 따름입니다.



<황윤일 / 페루>

‘세상이 저 멀리’

시애틀 북쪽으로 태평양 연안따라 사천여 승객태운 떠나는 크루즈선 신비한 자연을찾는 바다위에 뜬 호텔. 특선된 사람들만 즐기는 꿈의시설 멀리서 바라보던 호화판 크루즈선 흥분과 즐거움속에 모두 한팀 되누나. 삼십여년 집떠나 해외에 유리하던 선교사 신아홀명 위로차 초청해 준 엘에이 주안에교회 귀한정성 고마워. 말 없이 이름없이 주님께 섬기듯이 열댓의 안내자들 때마다 함께하네 선상서 어리벙벙한 선교사들 길잡이. 우리가 누구관대 큰 비용 들어가며 호사한 크루즈에 초청을 하셨는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후히 갚아 주시리 일가친척 친지도 뒤에두고 겹겹이 주님만 의지하고 단호히 떠났던 길 오로지 주님부름에 응답했던 충성심. 주님의 백성 찾아 말설고 물설은 곳 중도에 포기 않고 여전히 버텨낸 건 언제나 함께하시는 크신 주님 은혜다. 칠순을 훨씬넘겨 허리도 굽어졌네 머리에 하얀서리 깊히 박힌 주름살 뒤통수도 바꿀수 없는 연륜 메달이로다.

이른 아침 창문에 가랑비가 흐르고 흔들리는 뱃전에 흰 파도 부서진다. 이틀째 이 복된주일은 은혜단비 내린다. 먹을것 마실것과 잠자리 넉넉하고 통신이 두절되니 세상이 멀리있네. 이 배는 장차 내가 갈 천국모형 같구나. 십칠층 대형건물 부유의 일엽편주 반석에 기초없어 때마다 흔들리네. 주께만 의지하는자 바위상의 집이라. 고통과 고난속에 숨겨진 주님 교훈 아우성 치지말고 기초를 잘 놓거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놓아라. 천지의 모든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요 하늘의 아버지라 물위를 걸어보이신 예수님만 바라라. 안먹고 안마시면 사흘도 못견디는 버리지 못지 않은 짐승의 인생이라 겸손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식탁에 둘러앉은 원로의 전도자들 주거니 덕담이요 받거니 감사말들 세월이 만들었는가 천국길의 동행자.

드디어 폐회예배 마지막 다가왔네. 정들자 이별일세. 회개와 감사기도 또 다시 만남을 기억 사진 찍어 남기네. 우리의 안식이란 주안에 있음이라 진정한 육신의 쉼 사랑과 섬김의 도 베풀며 드림으로써 완전하게 누리리. 꽃들의 빅토리아 찬찬히 돌아보며 아물게 돌본손길 놀람과 감탄이다. 주님의 동산 가운데 나도 한 꽃 이여라. 가방을 다시 싸며 지난날 생각한다. 언제든 어디든지 떠나갈 준비하며 매일을 살아왔던 날 그땐 힘이 넘쳤지. 여행이 힘들어서 가방을 줄여 간다. 잡다한 물건들을 모두 다 정리한다. 주께서 부르시는 날 몸 가볍게 가리라.

(전 여행 일정을 운문체 글 중에서 일부만 발췌 / 편집자 주)

진솔한 고백 통해 ‘하나님이 목적 되는 삶’

<3면서 계속>

오전 10시,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영커플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마음다한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과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첫번째 세미나는 조원 안수집사의 진행으로 우선순위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각자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 부부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원하는 것에 집중한 삶을 고백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에 위해 살아가는 리더들의 삶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소망과 예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워크샵 시간이 끝난 후, 점심시간부터 액티비티가 시작되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이 한 팀이 되어 근처 바닷가로 나가 식사를 함께 하고, 미션지에 적힌 대로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서먹하게 시작했지만 미션을 하나, 둘 할수록 가까워짐을 느꼈다.

다시 돌아와 팀별로 찍어온 사진을 설명하고, 모두 하나가 되는 전체게임을 통해 몸이 가까워지고 함께 웃으며 기쁜 시간을 보냈다.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워크샵이 시작됐다. 사과의 5가지 언어라는 주제로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배우자의 사과의 언어는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것을 적용해 사과해보는 시간이었다.

서로에게 편지를 써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우자의 언어로 사과하는 시간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선 참석한 형제 중 한 분의 생일이 당일이어서 깜짝 미

니 생일파티를 한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 그 후에 뜨겁게 마음 다해 하나님앞에 찬양한 후, 마지막 시간은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서 다시 세웠던 우선순위를 다시 결단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가정예배로 나아가자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잊지 못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영커플 어머니날 ‘감사의 오찬’

2024년 5월 12일, 주안에교회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교회는 성도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2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영커플 목장의 섬김으로 오찬이 마련되었는데, 불고기, 잡채, 오징어전, 오이무침, 무국 등 잔치음식과 과일, 쿠키 등 디저트로 차려진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영커플 가족들 또한 섬김의 과정에서 서로 밀린 답소를 나누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다. 즐거운 식사 후 많은 성도들이 영커플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만남의 축복, 소중한 나의 짝... 더 깊은 사랑 다짐



겨주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덕분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수련회를 즐기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오랜만에 다른 커플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목장식구들만 알고 지내다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른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고 게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눴던 시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하루일정이 너무 짧고 아쉽다고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이번 영커플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보람 - 이번 수련회는 남편과 내가 부부로서 처음 함께 참석하는 수련회였기에 우리 가정에게 참 뜻깊고 의미있었다. 오랜기간 동안 남편과 같이 하나님께 좋은 교회로 우리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났고 수련회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이 마치 꿈만같이 느껴졌다. 워크샵에 앞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나의 쿵쿵거리던 심장소리가 들릴까, 말 못하게 벽차오르던 그 감동을 잠시 누르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무 고맙다고... 오빠와 함께 하는 이 수련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맑은 미소로 답을 전한 그의 마음이 느껴져 더욱 그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 참가자들 소감문

김민진 - 하나님께서 초대주셔서 깊은 섬김을 받고 온 영커플 수련회였습니다. 절실히 사모하고 섬겨주시는 집사님들과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함께 하심을 느낄수 있는 값지고 귀한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한가정한가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실히 사랑해주심을 받는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위

로와 격려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중요함과 배우자를 만나게해주심에 크신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영 - 우선 제가 토요일마다 일을 해서 사실 수련회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제휴가와 겹쳐져서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으로 감사드리고 싶은게 요계벧을 섬

■ 코람데오 나잇 저녁을 섬기며

지난 2월 첫째 주일 예배 중 있었던 주안의 교회 청년부 코람데오의 특송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게는 너무나 선명히 기억되는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어쩔 그렇게 깨끗한 어린 아이와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또 가사는 얼마나 또렷이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고백을 하는지 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저 청년들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기를 원한다. 또한 네가 듣고 있는 저 ‘청년의 기도’ 찬양이 너의 고백이고 기도이어야 한다’ 라고...

마음에만 품고 있을 즈음에 코람데오가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코람데오 Night 이라는 예배의 시간을 시작하며 그 시간에 식사를 섬겨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며 행복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메뉴로 할까? 푸짐하게 잘 대접하고 싶은데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우리 가족이 대접받는다면 어떤 메뉴가 좋을까? 무엇보다 찬양으로 더 할 수 없는 은혜를 준 작은 예수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코람데오 Night이 있는 토요일, 부족한 점도 있고 했을텐데 코람데오 청년들은 연신 칭찬해주며 맛있게 먹어주고 과하다 싶을

만큼 사랑의 하트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우리 교회 청년부에 새로 오시고 다음 날인 주일에 등록을 하신 자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생각지 않게 새로 오신 자매분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주일 교회에 들어서면 본당 앞 늘 같은 자리에서 활기차고 환한 미소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이 주일이 되면 꽃을 만들고, 부활주일에는 성도님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 이쁜 액자로 만들어 섬기고, 곳은 일,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찾아가는 코람데오 한분 한분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엄마의 마음으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최정화 권사>

■ Towards Something Brighter

On April 20th, ICCC EM set up a yard sale for the neighborhood. Aimed at f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apel, the yard sale proved to be another lively event that brought our members together, looking towards a bright future for the community. EM came together and poured their hearts into collecting items for the sale, a diverse array of treasures; there was something to pique everyone's interest. As the day went on, the yard sale buzzed with bright smiles and hearty laughs, and as the sun dipped low in the sky, the yard sale served as a reminder of the love for ICCC's future.

<Minhyuk Chang>



■ 중등부 아웃팅

5월4일(토) 오전 11시쯤 ICY 중등부(6~8학년) 학생들과 리더들 총12명이 Sherman Oaks에 위치한 Ultrazon Laser Tag(레이저 서바이벌장)에서 Outing이 있었다.

오랜만에 들뜬 기분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친목이 다져졌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3시쯤 교회로 돌아왔다.

아직은 고등학교 선배들 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키와 지혜도 자라고 믿음의 깊이도 깊어져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길 기대해본다.



■ 키즈 아웃팅

4월 13일(토) IC Now와 IC Power 학생들이 'Van Nuys Sky Zone'(트램펄린 파크)에서 아우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키즈부서에도 새가족과 방문자가 많은데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밖 새로운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성은 기자>



청백팀 경기·보물찾기·신나는 K-pop 댄스도

■ 한국학교 봄소풍

따스한 봄바람이 땅과 하늘을 스치고,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가정의 달 오월, 주안에 한글학교는 올해로 제3회 봄소풍을 개최하였다.

그저 수업을 안한단 그 사실만으로도 마냥 신나 툴툴랄라 콧바람장작한 아이들의 설렘을 담아 시작된 행사는 시작기도를 필두로 몽글몽글 어른들 추억소환하는 국민체조로 막을 열었다. 청팀, 백팀으로 나뉜 아이들은 단체 공굴리기, 이인삼각 게임을 통해 오랜만에 협동심과 한국문화의 일원의 소속감을 배우며 한마음이 되어 서로 열띤 응원을 하며 게임에 임했다.

어느덧 마지막 게임인 짝맞추기가 시작되자 웃음기 사라진 열띤 탐색전이 시작됐고, 차마 짝을 못끼른 친구를 내치지 못해 미안해 하는 아이들의 예쁜 성품에 미소짓는 것도 잠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댄스로 승화시키며 그간 쫓겨 숨겨놓았던 댄스 본능을 드러낸 꼬마친구들의 놀라운 춤사위에 k-pop의 미래를 본듯 선생님과 부모님도 모두 박장대소하고 말았다. 봄소풍



의 하이라이트 선물찾기가 시작되자 저마다 삼삼 오오 손에 손을 잡고 화단밑, 계단옆, 나무아래 구석구석 열심히 숨겨놓은 선물쪽지를 찾아 다녔다.

열심히 찾아낸 쪽지로 얻어낸 귀한 선물 교환식이 끝나고 올해도 언젠가 문득 되돌아 한번씩 곱씹어 미소지를 유년의 추억을 더하며 안전한

고 즐겁게 봄소풍을 마쳤다.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섬김의 손길을 더해 오월의 푸른하늘처럼 더 풍성하고 가슴 벅찼던 오늘, 이제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행사로 자리잡은 이 봄소풍이 언제고 계속되길 바라본다.

<이현영 기자>

‘하나님 솜씨 느껴요’

■ 오감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감각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전도사님과 저는 이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의 감각을 탐구할 수 있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드리는 경험할 수 없는 영아부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예배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양한 질감과 감정을 통한 경험과 자극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점토, 밀가루, ‘마법의 눈’ (인공 눈), 거품, 쌀과 파스타 혼합물, 물 풍선과 같은 흥미로운 재료의 다양한 스테이션을 통해 감각 스테이션을 차례로 경험하고 만져보



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각 스테이션을 마친 후,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가족끼리 긴장을 풀고, 소통하고, 감각적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충전과 휴식을 취하는 운동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함께 웃음과 화합이 넘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전도사님과 저는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선한 리더로 준비시키고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서로 한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을 통해 귀한 아이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길 늘 기도합니다.

<제니퍼 오 전도사>

꿈꾸던 한라산 등정, 가슴 뻗듯 감동이...

■ 모국 방문기

올해로 주안에교회를 섬긴지 십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40일간의 휴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부는 처음 열흘간은 봄방학을 맞이한 둘째 딸과 함께 일본을 방문 하였다.

꼭 가보고 싶었던 오사카, 교토, 나라를 여행 하면서 도시전체가 우상화 되어 있음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구경하면서 기도하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했다. 오사카 공항에서 딸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부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보니 사방에 십자가와 교회가 보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여수를 시작으로 거제도, 통영, 부산, 제주도를 거쳐 서울 인사동에서 2주를 머물며 마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마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였다.

이번 여행중에 가장 큰 목적을 이룬 것이 있다면 한라산 정상등반에 성공한 일이다. 4월16일 화요일 새벽5시 서귀포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성판악 입구에 도착하여 미국에서 미리 예약해 받은 QR Code 확인절차를 끝내고 정상을 향해 출발!

10년 전 한라산을 완등했던 남편의 가이드 따라 왕복 12마일을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올해 70세의 나이인데다, 평발을 가진 나로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기에 나름 특별한 작전을 세웠다. 새벽 일찍 입구문이 열리자마자 일등으로 들어가 출발하고 오후 늦게 문닫기 전에 꼴등으로 내려오는 작전이었다. 올라갈 때 젊은 사람들은 신나서 뛰다시피 급히 올라 갔으나 우리 부부는 거북이 처럼 유유자적, 자연을 즐기며

천천히 올라갔다.

날씨도 화창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며 마시며 기분 좋게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하니 먼저 열을 내고 올라간 어떤 등반객들은 지쳐 잠을 자고 있기도하고 중도에 하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대피소에서 정상까지는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있는 힘든 코스였다. 드디어 버리고 별렀던 한라산 백록담에 오르고 보니 감사와 뿌듯한 마음이 흘렀다.

준비해 간 점심을 잘 먹고 12시 30분, 서둘러 하산을 시작하였다. 똑같은 등산로인데 내려오는 길은 훨씬 더 험해 보였다. 발목과 무릎이 많이 지쳐 있어 속도를 아주 천천히 줄여야했다. 남편은 나와 같이 속도를 맞추느라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거의 내려 왔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하산하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갑자기 마음이 급했으니, 출입구에 도착하니 아직도 안내려 온 사람들이 여러명이라 하여 꼴등은 겨우 면하였다. 휴... 작전 성공!

한국을 떠나야하는 마지막 주일은 명동의 영락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행복한 모국여행을 마무리하고 LA로 향했다.

<임용자 기자>

■ 나무 자르고 잡풀 말끔이

지난 4월 20일(토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마친 후 10여명의 성도님들은 교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탈과 소방도로 주위 옷자란 풀들과 나무들을 정리하는 풀베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교회 조경과 산불방지를 위해 연례행사가 된 작업으로 이날도 거의 5시간동안 진행하였는데 모두가 성전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함도 잊은 채 정성스레 일을 진행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과 음료 그리고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광영 기자>



■ 어머니 날의 추억

소중한 믿음의 유산

“엄마! 고마워...”

눈물 때문에 말을 못 잇는 나에게 “승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줘서. 하나님 알게 해줘서. 나 낳아줘서 고맙고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 알게 해 줘서 고맙고...”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 어느 주일에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굶주려 올라오는 감사는 주체할 수가 없는 눈물로 변해 아기같이 엉엉 울게 했다.

엄마는 내가 기억을 하는 나이부터 주일 아침에는 무조건 대가족이 교회 출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하셨다. 하물며 나들이를 데려가 주실 때도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라도 교회는 꼭 출석하게 하셨다. 원피스를 입고 밑에 바지를 입고 배낭을 멘 어릴 적 사진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성수는 지키게 하셨던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있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엄마는 “내가 아니라 너희 할머니 때문이지. 할머니가 대단하셨지” 말씀하신다. 그렇다. 평양 대부흥 때 믿음을 갖게 된 할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손을 펴서 베푸는 일을 많이 하셨다. 그 때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6.25 때 지주 계급으로 목숨이 위협했던

할머니 가족들을 남한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도 집으로 찾아오는 거지들을 집안으로 들여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시곤 하셨다. 철 없던 내가 “할머니! 밥줘서 보내지 더럽게 왜 집에 데리고 와? 빨리 그릇 삶어” 투정하면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신거야”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모교회 새문안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창립 100주년 기념 책자에 교회를 빛낸 얼굴들에 할머니의 옛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방 권사로 섬기시면서 아무도 말고 싶지 않아하던 달동네를 10여 년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생긴 신경통은 할머니를 힘들게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던 모습이 수록돼 있었다. 늘 할머니를 보며 자란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사셨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해 주신 외할머니, 6살 밖에 안된 나를 언니들과 함께 버스를 2번이나 타고 주일을 지키도록 하신 나의 엄마의 믿음의 유산이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무나 부족한 나를 보지만 그래도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 버리지 말라고.

<오승현 목사>

주체할 수 없는 감동

■ 새가족 소감

아름다운 만남 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를 시작 하셨다.”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흐르는 감동의 눈물 때문에 운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 얼마만이였을까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찾아 오셨으면 제대로 오신 겁니다.” 라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주안에 만남.’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된 맛있는 식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의 섬김을 보고그 사랑을 흠뻑 받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심이 담긴 묵회 철학과 비전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내 맘을 신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발걸음이 왜 이리 즐거운지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감동 시키실 그 말씀이 나를 기대하게 하고 흥분 시킵니다.



<윤태원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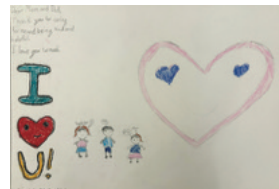
Daisy Choi



Leah Song



Alex Yoon



Sarah 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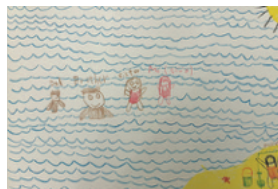
Audrey Choi



Hanna Chang



Zion Kim



Olivia Um



Esther Sum



Reese Ryu

■ 아이들이 그린 우리 가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IC Now & IC Power 학생들이 '가족사랑' &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에서 꽃피는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키즈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재 전도사>

■ 히말라야 등반기 / 김경배 장로

10여일 사투 통해서 벗겨진 ‘인식의 비늘’

감사! 감탄! 감동!

히말라야에서 가장 힘들다는 ‘Khumbu Himal의 3 Pass 3 Ri’ 코스를, “하루라도 젊었을 때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지난 4월에 이뤘다. 지금은 설산들의 설경들을 떠올리며 추억하지만, 24일간의 여정 내내 고산증세에 시달리며 “죽으러 간다”는 농의 말을, 실제로 체험한 길이었다. 작년에 다녀온 4000m대의 고지와는 등급이 다른 5500m대에서의 희박한 산소는 큰 동작이나 걸음도 몸이 감당하기 힘들어 고통을 생성해 제어하고, 음식섭취 할 의욕마저 줄인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의식이 희미해지는 상태로 만든다. 힘들에 섞인 고통을 견뎌내며 8일이나 걸어 올라 왔건만, 이제 겨우 4000m높이에 위치한 팡보체에



서 포기하고 헬기로 하산하는 산행자를 보며 의기소침해 졌다. 5500m 높이 대에 위치한 “3 Pass 3 Ri” 는추풍리를 포함한 7개 고지로, 앞



으로도 10여일에 걸쳐 넘어가야 한다. 첫번째 도전지인 추풍리에 올라가 내려다 본 히말라야 설산의 조망은 신비 그 자체였다.

세계 최고의 지붕에서 막힘없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설산들이 뻗뻗한 숲으로 펼쳐진 장관에, 그저 놀라움에 얼이 빠져 있다가, 콧물을 닦으면서야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자신을 인지할 정도였다.

이 감탄이 가시기도 전에, 7고지 중 가장 힘들다는 콩마라 패스를 넘을 때부터는 고산증세와 음식 섭취가 부실해 에너지는 바닥이었다. 5500m의 고지대를 계속 누벼야 하는데,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는 숨이 막히기에, 급히 숨을 토해내고 빨리 심호흡을 해야 하므로, 앓은 채로 숨을 고르며 자야 했다.

정신없이 에베레스트 캠프와 칼라파타르를 2일에 걸쳐 넘어왔건만, 가장 쉽다는 빙하의 출라 패스를 넘은 날 위기를 맞았다. 지친 나

머지 짙은 어둠에 늦게 도착해 가이드에게 “여행사에 연락해 헬기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아침에 다시 산행을 강행키로 마음을 다잡은 것은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인식에 스스로 “이게 뭐지!”하며 놀란다. 바울이 눈에 두껍게 쓰인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가 보였듯이, 내 인식에서도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생각들과 개념들이 두꺼운 비늘이 벗겨진 듯, 다른 의미와 가치로 이해되는 것이다. 지금도 돌아보면 고산의 힘들음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곳을 스스로 자원한 ‘무식하기에 용감한’ 무지를 은혜로 경험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이로운 자연의 경관을 힘든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 주심에 감사, 감탄, 감동하고 있음을 글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기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깨달아요

김아론, 이정현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고작 먹고, 자고, 싸고 밖에 못하는 생명이 왜 이리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매 두 세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기저귀가 불편하다고, 잠을 스스로 못 잔다고 읊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의 울음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들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를 찾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필요대로 불편을 토로하지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